

다. 더구나 숙종이 경종의 입학 을 위하여 갑술환국 이후 이이의 『소학제가집주』에 어제서를 달아 간행한 이래 『소학』은 숙종에서 경종을 거쳐 영조 자신으로 이어지는 왕통을 표상하는 매개가 되고 있었다.⁵³⁾ 따라서 영조는 자신의 왕통을 확증하기 위해 이를 각별히 평가하는 한편, 자신의 계승자에게로 연장시키고자 하였다.

영조의 장자인 효장세자는 영조 즉위 후 곧바로 세자에 책봉되었다.⁵⁴⁾ 그는 영조 3년에 입학했는데, 이 때 입학례에서 『소학』을 받아 앞에 있는 서안(書案)에 놓는 의식을 치렀다.⁵⁵⁾ 그러나 효장세자는 이듬해 요절하였다.

영조는 동왕 11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사도세자(思悼世子)이다. 사도세자는 만 1세에 세자로 책봉되었고, 동왕 18년에 입학례를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소학』을 강독하였는데,⁵⁶⁾ 영조는 당시 백관의 하례를 받고 반포한 교서에서 역시 삼대의 제도를 준행함을 밝히면서 이를 가리켜 “열성조에서 일찍이 행하셨던 바”라고 하였다.⁵⁷⁾

한편 영조 37년 세손의 입학례에 따라 반포한 교서에서는

문손(文孫)을 치학하도록 하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작은 네가 복유(服儒)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 아! 일대(一代)의 효(孝)를 일으키는 방법을 열어 삼선을 모두 얻었고, 만년토록 근본을 튼튼히 하는 업적을 수립하니 백록(百祿)이 여기에 모일 것이다.⁵⁸⁾

53) 윤정(2004.12), 앞의 논문. 특히 『소학제가집주』의 간행은 『성학집요』의 진강과 더불어 제왕학을 정비한 이이의 학문을 포괄함으로써, 이이의 문묘종사와 출향·복향을 단행하는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원자 책봉에 반대하였던 노론의 명분을 보강해 줌으로써 세자(景宗)의 위상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윤정(2006.6) (2006.12) 참조.

54) 『英祖實錄』 권3, 영조 원년 2월 癸巳

55) 『英祖實錄』 권11, 영조 3년 3월 丙午

56) 『英祖實錄』 권55, 영조 18년 3월 乙酉

57) 『英祖實錄』 권55, 영조 18년 3월 丙戌

58) 『英祖實錄』 권97, 영조 37년 3월 己酉, “措以文孫而齒學 古有是 不見藐汝之服儒 予甚

라고 하여 치학과 삼선의 이념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이것은 숙종과 경종이 세자 및 세제의 입학에 맞추어 반포한 교서와 동일한 구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정조는 입학례를 배제하면서 세자의 위상 강화라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정조가 세자 책례의 과정에서 입학례를 배제한 논리는 다음 언급에 잘 나타나 있다.

천자의 원자와 적자(適子)가 8세에 입학하는 것은 곧 삼대의 고례로서 본래 관례와 책봉의 선후(先後)에 관계되지 않는다. [...]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대체로 선성(先聖)에게 배례(拜禮)하는 것은 큰 예이지만 종묘에 배례하는 것도 큰 예이니, 알성(謁聖)을 묘현(廟見)보다 먼저 하는 것이 예의(禮意)에 어떨지 모르겠다. [...] 그렇다면 입학하는 것이 비록 선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을 높인 뒤 선조(先祖)를 높이고 선조를 높인 뒤에 선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⁵⁹⁾

위의 지적은 입학이 중요한 의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책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그 근거는 묘현보다 알성이 우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조의 인식은 의례 대상이 가지는 권위에 따라 경천(敬天)-존조(尊祖)-존성(尊聖)의 순서로 그 비중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조는 예의상 입학례와 관례·책례 사이에는 선후 관계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세자의 입학례를 선성, 곧 공자와 선왕 중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왕위 계승자로 확정되는 세자가 선왕에 대한 묘현보다 공자에 알현하는 의식을 먼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는 치학을 통해 삼선의 의미를 깨닫게 함으로써 왕위 계승자로서 본격적인 수련에 나서게 한다는 입학례의 의미를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대한 인

嘉 [...] 於戲 膺一代興孝之方 三善皆得 樹萬年鞏本之業 百祿是適”

59) 『正祖實錄』 권47, 정조 21년 11월 己巳, “至於入學 則非設都監之事 且天子之元子適子 八歲入學 卽三代古禮 本不係於冠禮封冊之後 [...] 但有一事 不能無咨 且于中者 夫拜先聖 大禮也 拜宗廟 亦大禮也 謁聖之先於廟見 未知禮意之何如 [...] 然則入學雖曰尊聖 而尊天而後尊祖 尊祖而後尊聖”

식이라는 정치적 문제로 재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정조의 입장에 대해 신료 쪽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데서 잘 나타난다. 정조의 지적에 대해 이병모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입학례를 반드시 먼저 거행하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구경(九經)의 의(義)를 보면 존현(尊賢)이 존친(尊親)보다 앞서 있습니다. 알성은 선사를 존송하는 것이니, 선사를 존송하는 것이 곧 존현입니다. 존현 연후에 비로소 선조를 높이고 하늘을 공경하는 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대의 예에서 입학울 가장 중하게 여긴 까닭입니다.⁶⁰⁾

이병모의 주장은 『중용』의 9경에서 존현이 존친보다 앞에 있음을 근거로 삼고⁶¹⁾ 존사(尊師)를 존현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해함으로써 이것이 존친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이것은 말미의 언급에서 드러나듯이 존현을 통해 존친과 경친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권위의 순서가 아니라 학습의 순서에서 그 단계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를 경우 알성은 학습 과정에서 스승에 대한 존송을 의미하는 원론적인 차원으로 제시된다. 입학은 이 이념을 구현하는 의례였다.

정조가 문제로 삼은 것은 바로 입학례에 수반되는 알성의 대상인 공자가 삼대 이후 군도와 사도가 나뉘었을 때 사도를 전수한 인물이라는 데 있었다. 알성은 공자로 표상되는 사도에 대해 국왕이 존송을 표하는 것이었다. 영조가 늦은 나이에 불구하고 입학례를 치른 것은 바로 예외적 상황에서 계승자로 선택된 자신의 위상을 신료들로부터 공인받고자 한 것이었다. 세자가 어릴 경우 입학은 치학의 이념에 따라 설정될 수 있었으나 이미 장성한 영조의 경우 이러한 원론

60) 『正祖實錄』 권47, 정조 21년 11월 己巳, “入學之禮 未必不可先學 九經之義 尊賢先於親親 謁聖者 所以尊師也 尊師 卽尊賢也 尊賢然後 方學得尊祖敬天之道 此所以三代之禮 最重入學也”

61) 『中庸』의 9경이란 修身, 尊賢, 親親, 敬大臣, 體群臣, 子庶民, 來百工, 柔遠人, 懷諸侯를 말한다. 또한 朱熹는 “親親之殺 尊賢之等”에 대한 설명에서 “欲盡親親之仁 必由尊賢之義”라고 하여 尊賢이 尊親보다 선행하는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정조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군주의 권위가 신료들에 의해 규정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조의 사례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의식한 정조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에 정조는 장성한 세자에게 직접 책문을 전수함으로써 계승자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반대로 입학례를 배제함으로써 신료들의 논리에 의해 규정될 여지를 차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조는 당초 입학례를 거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책례·관례와 통합 실행하겠다는 명분으로 연기시키고, 정작 원자가 성년이 되는 단계에서는 입학을 관례 뒤에도 할 수 있다는 논리와 알성이 묘연보다 앞설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배제하였던 것이다.⁶²⁾

이것은 결국 세도(世道)를 담임하는 사도(師道)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17세기 이래 산림이 사도를 담임한다는 명분을 들어 후계자의 교육, 나아가 정계의 논의에 직접 관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결국 정조는 궁극적으로 국왕은 물론 그 계승자까지 군사(君師)로서 비정하고 군신 관계에서 국왕이 철저히 의리를 주도하겠다는 이념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점에서 입학례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세자 책례는 정조의 군사 이념이 단적으로 표현된 의례 내지 정책으로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⁶³⁾

62) 군사 이념을 학문과 교육의 차원에 국한하여 접근할 경우 입학례는 오히려 군사 이념에 부합하는 의례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군도가 사도가 일치한다는 군사 이념의 본질은 국왕의 위상이 신료들이 제시하는 논리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입학례는 신료들이 제시하는 틀에 의해 왕위 계승자가 그 위상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조의 군사 이념에 가장 저촉되는 의례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정조가 신료들과 맞서 묘연이 알성보다 우선함을 말한 것은 그러한 인식이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63) 정조는 자신이 직접 장성한 세자에게 군주 성학을 전수하는 단계까지 모색하고 있었는데, 『대학유의』 편찬은 그 산물로 이해된다. 이것은 정조가 입학례를 단순히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배제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세자 책례와 『대학유의』의 상관성은 별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를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는 정조가 세자의 책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여기에 반영된 정조의 군사 이념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조는 문효세자가 요절한 후 새로 얻은 아들에 대해서는 원자로 책봉하였을 뿐 세자 책봉은 계속 미루었다. 당시 정조는 원자 책봉만으로 그 위상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숙종의 전례를 모범으로 삼아 세자가 장성하여 책명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단종 사적의 정비를 통해 신료들의 충의를 요구하는 등 후계자로서 원자의 위상을 확고히 쌓아가고 있었다.

정조가 세자 책봉을 결정한 것은 동왕 24년 정월 초하루의 일이었다. 정조는 조상의 교시를 결정의 계기로 내세웠는데, 이는 동왕 19년 환조를 영흥본궁에 추제할 때와 같은 방식이었다. 아울러 책례와 관례·가례를 함께 거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신료들이 모두 찬동의 뜻을 밝히자 정조는 이를 '대동'의 의미로 평가하였는데, 이 또한 환조 추제에서 이미 피력된 것이었다. 이는 자신에게 내려오는 왕통에 이어 자신으로부터 내려가는 왕통에 대해서도 대동의 이념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려는 것이었다.

책례를 관례·혼례와 함께 거행하는 것은 현종의 고시를 원용한 것으로서 이를 매개로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는 대동의 이념을 구체화하였다. 당시 행사를 담은 계도병에 수록된 서문에도 역시 현종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종의 사례는 세손에서 세자로 진봉하는 상황과 인조의 국상이라는 사정이 개재된 예외적인 경우로서, 곧바로 세자를 책봉하는 정조대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조가 현종의 사례를 원용한 것은 이들을 묶음으로써 입학례를 배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정조 24년 2월에 세자의 관례와 책례가 함께 거행되었다. 순서상 관례가 먼저였음에도 관례 때 내려주는 훈서를 책례 때 내려주는 책서가 겸하도록 처리하였는데, 이는 의례의 초점이 책봉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조

는 성인이 된 세자에게 직접 왕통을 전수하는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가례는 재간택까지 진행되고 세손빈도 내정되었으나 정조가 서거함으로써 의례는 순조 즉위 후에 거행되었다.

이 과정에는 정조의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투영되고 있었다. 통상 책례는 별도의 과정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주로 입학과 관례, 가례가 연속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조는 책례와 관례, 가례를 묶고 입학례를 제외하였다. 정조가 원용한 현종의 사례는 어린 나이에 세손에서 세자로 책봉된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통상적인 관행과 부합하고 있었다. 곧 정조는 원론보다는 변용된 사례를 채용하였던 것이다.

정조는 당시 『예기』 「문왕세자」편에서 ‘삼선(三善)’의 효과를 인용하며 의례의 통합 시행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구절은 본래 세자의 치학(齒學)을 준거로 한 것으로서 입학례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입학례를 배제하고 책례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정조 21년의 논의부터 이미 제시되고 있었는데, 책례 연기의 의도는 바로 입학례를 배제하는 데 있었다. 실제 입학례에 따르는 사부 임명과 『소학』 강독은 강학청에서 미리 처리된 상태였다.

정조는 결국 입학례 대신 책례를 중심으로 관례와 가례를 묶어 삼선의 명분을 확보한 것이었다. 이것은 세자의 정치적 위상을 뒷받침하는 의례로서 입학례를 중시한 숙종이나 영조와는 다른 면모였다. 앞서 숙종과 영조에게 입학례는 왕위 계승자의 위상을 공인하는 행사로 인식되고 있었고, 『소학』은 그러한 이념을 표현하는 매개로서 중시되었다. 영조가 늦은 나이에 세제로 책봉되어 입학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다. 영조는 세자 및 세손의 책봉에서도 입학례를 설행하였고, 그 의미로서 치학과 삼선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영조의 전례가 결국 왕통이 신료들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 인식하고 이를 구현하는 입학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 때 정조는 배례(拜禮) 대상의 권위 차이를 근거로 알성(謁聖)이 묘현(廟見)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신료들은 『중용』 9경에서 존현(尊賢)이 존친(尊親)보다 앞에 있음을 들어 입학례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입학은 신료들이 요구하는 군주 성학(聖學)의 단계를 수용하는 의미가 있었으며, 알성은 공자로 표상되는 사도에 대해 국왕이 존송을 표하는 것이었다. 정조는 이것이 군주의 권위를 저해한다고 보고 제외한 것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왕은 물론 그 계승자까지 군사(君師)로서 비정하면서 군신 관계에서 철저히 국왕이 의리를 주도하겠다는 이념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점에서 세자 책례는 정조의 군사 이념이 왕실 의례를 통해 천명된 사례로서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조의 지향은 세자 교육을 매개로 한 군주 성학의 전수에서도 구현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참고문헌

- 金文植(2000), 「君師 正祖의 教育政策 研究」, 『民族文化』 23, 56-114.
- 김문식(2001), 「正祖의 華城 闕里祠 경영」, 『正祖思想研究』 4, 65-94.
- 金成澗(1992), 「蕩平의 原理와 蕩平論」, 『釜大史學』 15·16, 433-458.
- 金成澗(1997), 『朝鮮後期 蕩平政治 研究』 지식산업사.
- 박정혜(2000), 『조선시대 궁중기록화연구』 一志社.
- 박현모(2000 가), 「正祖의 君師論 비판: 초계문신제와 문체반정을 중심으로」, 『韓國實學研究』 2, 143-172.
- 박현모(2000 나), 「正祖의 蕩平정치 연구: 성왕론의 이념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4-1, 45-62.
- 안병욱(2003), 「조선후기 대동론의 수용과 형성」, 『역사와현실』 47, 187-216.
- 윤정(2004), 「英祖의 三相 追復과 善述 이념: 영조 정치사상의 일 단면」, 『韓國學報』 116, 79-115.
- 윤정(2004), 「肅宗-英祖代의 세자 교육과 『小學』: 奎章閣 소장 『소학』 관련 서적의 분석」, 『奎章閣』 27, 33-54.
- 윤정(2005), 「正祖代 端宗 事蹟 정비와 ‘君臣分義’의 확립」, 『韓國文化』 35, 235-274.

- 윤정(2006), 「숙종대 『聖學輯要』 進講의 경위와 의미 : 숙종 정국운영의 일단면」, 『南冥學研究』 21, 207-240.
- 윤정(2006), 「英祖의 『聖學輯要』 進講과 정책적 활용 : 蕩平·均役·濬川과의 상관성」, 『韓國文化』 38, 303-336.
- 윤정(2007), 「正祖의 本宮祭儀 정비와 ‘中興主’ 의식의 강화」, 『韓國史研究』 136, 179-216.
- 윤정(2007 가), 「正祖의 『大學類義』 편찬과 『聖學輯要』」, 『南冥學研究』 23.
- 윤정(2007 나), 「英祖의 『聖學輯要』 이해와 君師 이념」, 『東方學志』 게재 예정.
- 정경희(1999), 「君師 英祖의 性理學 진흥책」, 『韓國學報』 97, 54-84.
- 鄭玉子(1978), 「正祖의 學藝思想 : 弘齋全書 日得錄 文學條를 中心으로」 『韓國學報』 11, 2-37.
- 鄭玉子(1982), 「正祖의 抄啓文臣教育和 文體政策」, 『奎章閣』 6, 115-139.
- 鄭玉子(1983), 「朝鮮後期 漢文學 思潮史 研究」, 『韓國史學』 5, 121-199.
- 鄭玉子(1988), 「正祖朝 文化政策」, 『朝鮮後期文化運動史』 一潮閣, 60-188.
- 鄭玉子(1996), 「正祖의 教化思想」, 『奎章閣』 19, 55-77.
- 정옥자(1999), 「정조의 사회통합사상」,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45-75.

원고 접수일: 2007년 3월 29일

게재 결정일: 2007년 5월 21일

ABSTRACT

The Ideology of 'Gunsu/(Master King)', mirrored in
the Investiture ceremony held for the crown
prince of King Jeongjo

Yoon, Jeong

King Jeongjo kept delaying the crown prince's ceremony of investiture(冊禮), until January the 24th year of his reign when he decided to hold the ceremony for the crown prince who became 11 that year. Jeongjo cited the instruction from the ancestors as the one which prompted his decision to hold the ceremony, and cited the necessity of 'unity(大同)', in order to secure the consent of the vassals. Jeongjo decided to hold the investiture ceremony, along with the coming-of-age ceremony(冠禮) and the 'auspicious' ceremony(嘉禮). The decision was a fairly intentional one, and it was basically to remove the ceremony of 'entrance to school'(入學禮) from the entire process. It was also the reason why the investiture ceremony was delayed for such a long time. The ceremony of school entrance and education of the crown prince, were all handled by the Ganghak-cheong(講學廳) office for the time being.

In the time before, the ceremony of entrance to school was perceived as a ceremony which officialized the status of the person who was going to be named as successor to the throne, and it had the meaning of that

entity, as part of the royal family, going through necessary steps of studying the teachings of noble saints(君主 聖學), which was required of the successor to the throne, by the vassals. In response to such notion, King Jeongjo considered taking such step as having the royal authority of the King defined by the vassals(who were basically subjects of the King), so he decided to eliminate the ceremonial occasion based upon such notion from the entire ceremonial process that involved the crown prince. And in doing so, King Jeongjo made it clear that he considered the King's authority more important than the order of steps that should be taken in educating the crown prince. All these efforts basically signaled the fact that the King and the successor were going to promote themselves as Master Kings(Gunsa/君師), and take the leading role in realizing the cause of righteous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the vassals.